

# 韓 도움 언급한 트럼프... 조선·방산업계, 신규수주 기대감

트럼프, MRO분야 등 협력 요청  
국방비 확대 예상... 시장 진출 기회  
일각선 단기적 수혜 제한적 분석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조선업에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국내 조선업계의 방산 분야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다만 미국 존스법의 제약으로 인해 단기적 수혜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며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MRO(보수·수리·정비)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 조선업의 협력을 요청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공약집에서 핵심 국방정책으로 '미군 현대화'를 내세웠다. 이에 한국 방산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우선 조선업계가 수혜를 볼 수 있는 분야는 MRO일 것으로 기대된다. 미



HD현대중공업이 공개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 기본설계 모습

/HD현대중공업

해군의 MRO 예산은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한국 업체에 일감을 주면 태평양 함대의 비전 투함이 1순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국방비 지출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통해 미국 시장 진입 기회를 노릴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팽배하다.

미국이 한국 조선업에 힘을 빌리겠다는 뜻을 내비친 이유로는 대만과 남중국해 패권을 두고 중국과 무력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점이 꼽힌다. 또한 미국 내 조선업은 높은 생산비용과 인건비, 저하된 기술력으로 인

해 경쟁력을 잃고 있는 상황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자국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며 내세운 존스법으로 기술이 쇠퇴한 점도 한국 조선업에 손을 뻗은 원인으로 지목된다. 존스법은 지난 1920년 제정됐다. 해당 법안은 미국 선박만이 미국 항구에서 다른 항구로 물품과 승객을 운송할 수 있게 하며 이들 선박은 미국이 만들고 소유·운항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로 인해 조선업계에서는 존스법이 개정되어야 국내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존스법 개정을 통해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중대한 투자를 하도록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존스법으로 인해 미국의 방산 분야에서 수주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 조선소가 미국 내 거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설사 미국에 거점이 있더라도 외국계 자본이 들어있는 한 최첨단 무기를 발주하기에는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셰일 오일에 대한 에너지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발된 에너지원의 수출·운송 분야에서 한국 조선사들이 이익을 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내 조선소가 강점으로 내세우는 LNG운반선이 에너지 수송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재집권으로 인해 방산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해 시장이 넓어진다는 점에서 조선사들에게 의미가 있다"며 "우방국으로써 한국과 미국의 신뢰가 쌓이면 제약이 있던 방산 시장에서도 문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 현대자동차

### '그랜드마스터' 인증 평가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최고 수준의 서비스 엔지니어 양성을 위한 '2024 그랜드마스터 인증 평가'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랜드마스터 인증 평가는 현대차가 서비스 엔지니어들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2년부터 진행해 온 우수 엔지니어 평가 프로그램이다.

이번 2024 그랜드마스터 인증 평가에는 전국 직영 하이테크 센터 엔지니어 79명 및 블루핸즈 승용 엔지니어 486명이 참가했으며, 1차 필기시험을 합격한 28명(직영하이테크 센터 20명, 블루핸즈 승용 8명)을 대상으로 현대차 천안 글로벌 러닝센터에서 10월 29일과 10월 31일에 2차 실기 평가가 각각 진행됐다.

/양성운 기자

## 삼성전기

### '일렉트로니카 2024' 참가

삼성전기가 독일에서 전자 부품 기술력을 선보이며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전기는 독일 뮌헨에서 오는 15일까지 개최되는 '일렉트로니카(Electronica) 2024'에 참가해 차세대 전자부품 기술력을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일렉트로니카(Electronica)는 3000개 이상 글로벌 전자부품 기업이 참가하고, 8만명 이상 방문하는 세계 최대 전자 부품 전시회다.

삼성전기는 AI/서버용 MLCC/FCBGA, 전장용 MLCC/카메라모듈 등을 소개한다.

삼성전기 장덕현 대표이사도 직접 전시회장을 찾아 고객과 소통하며 기술 동향과 미래 계획을 설명할 계획이다. 장사장은 스마트폰이 주도해온 시장이 EV·자율주행, 서버·네트워크 위주로 변화되고 이후에는 휴머노이드, 우주항공, 에너지 위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부품과 소재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 LG전자, 텐스토렌트 협업... 칩렛 등 반도체 역량 강화

조주완 사장, 짐 켈러 CEO 회동  
"차별화 경험 제공하는 공감지능 구현"

LG전자가 공감지능(Affectionate Intelligence) 구현을 위해 인공지능(AI) 반도체 역량을 강화한다. LG전자는 자체 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유수의 업체들과 협력하며 AI 경쟁력을 키울 계획이다.

LG전자는 조주완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짐 켈러 텐스토렌트 CEO를 만나 전략적 협업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병훈 최고기술책임자(CTO) 등 LG전자 주요 경영진과 데이비드 베타 고객총괄책임자(CCO) 등 텐스토렌트 경영진이 함께 참석했다.

LG전자는 AI를 공감지능으로 재정의하고, 고객과 교감하는 AI를 구현하는 것을 회사의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이번 협력도 미래 사업에서 AI 기술을 앞세워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LG전자 조주완 CEO와 텐스토렌트 짐 켈러 CEO가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만나 전략적 협업을 논의했다. /LG전자

추진된다.

텐스토렌트는 개방형·저전력 반도체 설계자산(IP)인 RISC-V(리스크-파이브) CPU(중앙처리장치)와 AI 알고리즘 구동에 특화된 IP인 텐식스(Tensix) NPU(신경망처리장치)를 활용해 세계적인 고성능 컴퓨팅(HPC)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는 기술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받는다.

양사는 급변하는 AI 기술 발전 속도

에 발맞춰 미래 사업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칩렛(Chiplet) 기술 등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분야 역량을 강화한다. 칩렛은 여러 반도체를 하나의 패키지로 만드는 기술로 고성능 반도체를 다양한 용도에 맞게 구성해 빠르게 개발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특히 각자 보유 중인 반도체 IP와 여러 기술을 활용해 AI 가전부터 스마트홈, 모빌리티, 영상 관련 서버용 프로세서 등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협업 기회를 찾고 시너지 창출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양사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설립해 우수 인재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조주완 CEO는 "텐스토렌트가 보유한 AI 역량과 리스크파이브 기술은 업계 최고 수준"이라며 "긴밀한 협력을 통해 LG전자는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고객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공감지능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짐 켈러 CEO는 "LG전자는 세계적

수준의 기술 리더로, 뛰어난 SoC 개발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양사가 전략적 협업을 통해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AI 가전과 스마트홈(가정자동화) 분야뿐 아니라 모빌리티(교통수단)와 커머셜 등에서 자체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LG전자는 AI 관련 소프트웨어(SW)와 알고리즘 기술을 지속 고도화해 생성형 AI 기반의 제품과 플랫폼,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이와 연계한 AI 반도체를 개발해 온디바이스 AI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LG전자는 SoC(시스템온칩)센터를 주축으로 제품과 서비스에 특화된 시스템반도체 설계 역량을 핵심 기술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차별화된 화질과 음질을 제공하는 올레드 TV 전용 반도체 '알파11 AI 프로세서', 가전 전용 AI 반도체 'DQ-C'를 비롯 AI 반도체 역량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 삼성전자, 중소·중견기업에 128건 특허기술 무상이전

이미지 처리 장치·방법 등 기술나눔

삼성전자가 85개 중소·중견기업에 128건의 특허기술을 무상 이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삼성호텔에서 68개 기술나눔 수혜기업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산업부-삼성전자 기술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술나눔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미활용 우수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 이전하고, 관련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시행 중이다. 올해까지 총 41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3672건 기술을 1887개 기업에 무상이전했다.

이번에 이전되는 주요 특허들을 살펴보면, 사용자의 심박수 등 생체 정보와 주변 오르막 등 지리 정보에 기초해 목표지까지 최적 경로를 제안하는 '경

로 추천 방법', 스크린을 주시하는 사용자 안구의 시선을 추적하고 눈 깜빡임 등으로 원하는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제어 방법', 스마트폰을 스마트TV의 RFID 태그에 단순 접촉하는 동작만으로 양 기기간 콘텐츠가 자동으로 공유되는 '무선 네트워크 접속 방법', 카메라의 이미지 처리장치에서 외부 광원의 주파수 특성을 분석, 광원의 종류를 검출하고 그 광원의 중

류를 근거로 영상신호의 화이트 밸런스를 제어, 정확한 색 재현을 구현하는 '광원의 특성을 이용한 이미지 처리 장치 및 방법' 등이다.

삼성전자는 기술나눔 참여 기관들 중 가장 우수한 실적을 통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체계 구축의 모범사례로 꼽힌다. 2015년부터 기술나눔에 참여한 이후 현재까지 기술나눔을 위해 6808건의 기술을 제공했고, 이 가운데 1210건의 특허를 673개 기업에 무료로 이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

/양성운 기자

## 아우디코리아

### 'Q6 e-트론' 사전계약

아우디 코리아가 '더 뉴 아우디 Q6 e-트론'을 국내 공식 출시 전 프리뷰를 통해 한국 시장에 최초로 공개하고 사전계약을 실시한다.

12일 아우디코리아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국내 출시하는 중형 전기 SUV Q6 e-트론은 인상적인 주행성능 및 충전, 향상된 효율성이 돋보이는 '기술을 통한 진보'를 완벽히 보여주는 프리미엄 순수 전기 모델이다.

차체는 전장 4771mm, 전폭 1939mm, 전고 1648mm로 1회 충전 시 최대 641km(WLTP 기준)의 주행이 가능하다.

국내 출시가격은 8000만원 초반에서 1억원 초반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사전계약은 전국 아우디 전시장과 아우디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양성운 기자